

미심쩍은 대전문화재단 채용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 제시...공연관련 대표 임용 규정 등 특정한 모시기 시도 의구심

대전시가 오는 10월중 대전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자격을 요구하는 직원 채용기준을 마련해 적임자를 뽑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사고 있다.

반면 다른 문화예술기관의 채용규정에 전례가 없는 공연기획사 및 문화예술단체 대표를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 특정인을 채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대전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면서 전원 계약직으로 한 사무처장, 팀장, 팀원의 자격요건을 제시했다.

사무처장 자격요건은 ▲문화예술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 5년 이상 경력자 ▲대학 조교수 이상 ▲공연기획사 또는 문화예술단체의 대표로서 5년 이상 경력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문화예술 행정 2년 이상 경력자 등이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과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국내외 문화예술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 5년 이상 된 경력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할 경우 과연 누가 단기 계약직인 대전문화재단 사무처장직에 응모하겠느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어 이들은 공연기획사 또는 문화예술단체 대표에 관한 자격요건을 넣은 것은 처음 봤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기획사나 단체는 법인등록도 하지 않은 채 1명 또는 2-3명에 불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임의단체로 돼 있는 경우가 흔한 데다, 야간업소에 출연자를 공급하는 기획사나 단체 대표도 했 수만 채우면 응모할 수가 있어 채용과정에서 혼란을 빚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한정을 하지 않은 기획사 및 문화예술단체 대표 자격을 대전에 국한할 경우 몇 되지 않는 기획사·문화예술단체 대표 가운데 특정한 채용을 위한 노림수 아니냐는 의혹을 보이고 있다.

자문위원인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사업추진단장과 이현식 인천문화재단 사무처장은 “사무처장 자격요건에 박사학위 취득자 및 대학 조교수에 관한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져 지나치게 엄격하다”면서 “공연기획사 및 문화예술단체 대표에 관한 규정 삽입은 한 마디로 난데없는 것이다. 자격요건에서 많은 부분을 완화해야 하고 보완할 것도 있다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연기획사·문화예술단체 대표에 관한 규정은 대구·부산문화재단에 전례가 있어 삽입했을 뿐”이라며 “이를 포함해 박사학위 취득자 및 대학 조교수에 관한 자격요건은 빼고 보완할 것을 검토 중이다. 사무처장 임기는 대표이사와 같은 3년으로 해 러닝메이트처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팀장·팀원과 같이 계약직으로 7월중 공고를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류용규 기자 realist@daejonilbo.com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